제목	26.8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,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대치 시현

(대미 무역흑자 현황 및 요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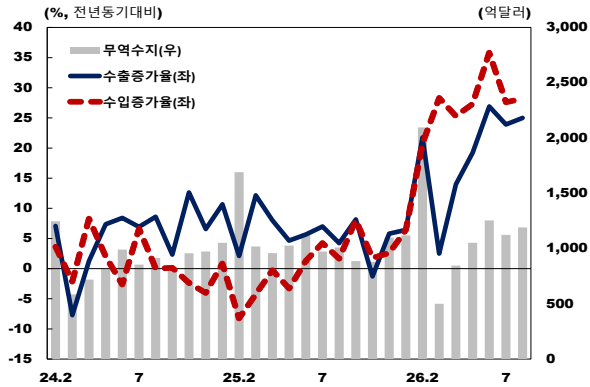
□ **2026년 8월** 중국의 **대미 무역흑자 규모**가 **291.8억 달러**(전년 동월비 +43.6%)를 기록하며 **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대치***를 시현(26.9.8일, 해관총서)

* 역대 최고 대미 무역흑자는 21.9월, 약 420억 달러

○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트럼프 정부 재출범(25.1월) 이후 對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0%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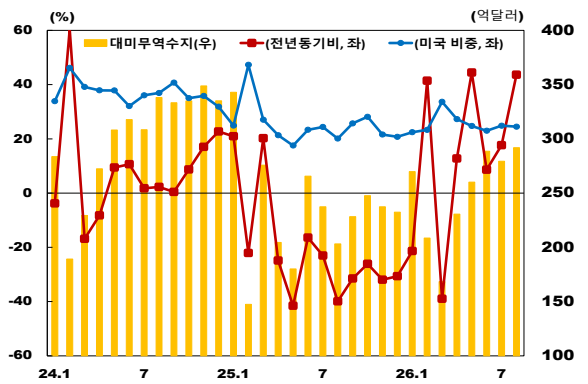
금년 4월부터 무역수지 증가율이 재차 플러스로 전환되고 5월 44.4%까지 확대되면서 흑자 추세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

[그림 1] 중국의 무역수지[1)]



주 : 매년 2월 수치는 1,2월 합산분 기준
자료 : 해관총서

[그림 2]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



자료 : 해관총서

□ 이는 AI 인프라 확충 경쟁으로 **첨단 반도체 및 컴퓨팅 기기 수요**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**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이 급증**한 데 기인

○ 집적회로(반도체) 수출의 경우 8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129.8% 급증하며 4개월째 세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, 자동정보처리장치(컴퓨터 및 부품) 수출 역시 8월 들어 76.5% 증가

— 집적회로 및 자동정보처리장치가 8월 수출 증가분의 45% 기여(國盛証券, 財通証券)

작성자 : 북경사무소 유희준 차장

○ 수출 물량보다는 **메모리 가격 상승**이 수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

— 집적회로 수출의 경우 수량은 전년동월대비 -7.8% 감소했지만 가격이 +150.1% 상승(國盛証券)

○ 반면, 자동차의 경우 6~7월 40%대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나 8월 들어 증가율이 둔화(28.9%)되었고, 가전제품(10.8%) 등 전통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는 등 첨단제조업과는 대조적인 모습

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별 증가율

(%, 전년동월대비)

품목	26.5월	6월	7월	8월
집적회로(반도체)	110.9	121.9	116.6	**129.8**
자동정보처리장치(컴퓨터)	66.1	53.1	67.4	**76.5**
자동차	25.3	47.7	41.2	28.9
휴대폰	44.3	27.5	26.6	29.6
가전제품	9.4	15.3	6.6	10.8

(향후 전망)

□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 확대는 연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**미중 간 관세 협상 국면의 변화** 및 **기업들의 재고·조달 전략 변화**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임

○ 중장기적으로는 **미중 무역 마찰의 초점**이 철강 등 제조업 품목에서 **첨단기술·AI 공급망 영역으로 이동**하면서 **무역흑자 증가세가 제한적**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

— 이달 말 **미중 정상회담***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(AI)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악의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(로이터 통신, 9.8일)

* 관세(7.5% 추가 관세 검토), 농산물 구매, AI, 투자, 희토류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

— **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**과 9월 국경절 연휴 등에 따른 기업들의 선제적 수출도 8월 대미 수출 증가에 기여(銀河証券)